

CSU 글로벌대학 소식지

2025년제2호



조선대,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 선정



조선대학교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다.

조선대는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웰에이징 특화 전략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디, 에이지테크, 라이프케어 등 3대 특성화 분야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 협력한 혁신 전략을 마련해왔다.

또한, 조선간호대와 조선이공대와의 통합을 통해 총괄총장제를 도입하고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예비지정은 조선대학교가 단순히 대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며, “남은 본지정 평가까지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반드시 글로벌대학 본지정의 결과를 멋도룩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본지정 신청 후, 9월에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장님이 직접 말해주는 글로벌대학



Q: ‘웰에이징’을 대학 특화분야로 꼽은 이유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대학의 비전을 ‘웰에이징 아시아 넘버원 대학’으로 세웠다. 웰에이징 특화 인재 1만명 양성, 200개 기업 창업·유치, 5000명의 외국 유학생 유치로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웰에이징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Q: 조선대의 웰에이징 분야 강점은?

조선대는 생명과학, 임상의학, 바이오자원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실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만 2000명의 장기추적 데이터와 정밀의료 데이터 세계 4위, 펩타이드 신약개발 특허 106건 등을 통해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해조류 유전체 데이터 180종, 2400여점을 구축했으며 39건을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한 상태이다.

Q: 3대 특성화 대학이란?

조선대는 ‘웰에이징’을 중심으로 ‘바이오 메디’, ‘에이지 테크’, ‘라이프 케어’ 등 3대 특성화 대학을 구축해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를 융합하는 교육과 기존 13개 단과대 등과의 학문 간 장벽이 없는 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 메디는 노인성 질환과 펩타이드 연구를, 에이지 테크는 AI 기반 진단·관리 기술, 라이프 케어는 복지 모델을 구축한다. 교육과정은 융합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 맞춤형 학위 이수 체계를 제공하며 바이오헬스전공 학생이 고령 친화적 주거설계나 돌봄정책과 같은 분야를 선택해 융합역량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는 학생 개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실증에 기반을 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조선대만의 혁신 교육모델이 될 것이다.

Q: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와 통합도 관심인데.

조선대는 조선간호대와 조선이공대와의 통합을 통해 보건의로 인력 양성 및 AI 기반의 보건의로 산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간호대학 규모 3위를 목표로 하며, 국내 대학 최초로 ‘총괄총장제’를 도입하여 통합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Q: 글로벌 대학의 도약 청사진은?

웰에이징 클러스터를 통해 교육, 연구, 산업을 연결하고, 베트남, 몽골, 중국에 해외 거점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보스턴 의과대학과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여 동남아 고령화 시장을 겨냥한 웰에이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위한 발자취

2025.04.10 (목)

조선대, 2025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안 학과 공청회 성료



조선대학교는 지난 4월 9일 ‘2025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안’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에는 전제열 부총장과 주요 보직자, 단과대학장, 학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글로벌대학 추진 계획, 학사구조 개편안, 조선대·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 간 통합 거버넌스 방향 등이 논의됐다. 조선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건강수명 연장과 고령친화 산업 특성화 전략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대학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14 (월)

조선대-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 통합 ‘시동’



조선대·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는 15일 ‘총괄 총장제 협약식’을 열고 단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학 통합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2027년 조선대와 조선이공대 통합 기구 구성과 조선간호대 신입생 통합 모집까지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세 대학은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비전 아래 ▲웰에이징 특성화 교육혁신 ▲빅데이터 기반 산학협력 모델 구축 ▲글로벌 자회사 확산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한 광주시 고령친화산업, AI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해 글로벌 거점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대 김이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웰에이징 중심 대학’ 혁신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조선대가 글로벌대학 30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과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도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2025.04.18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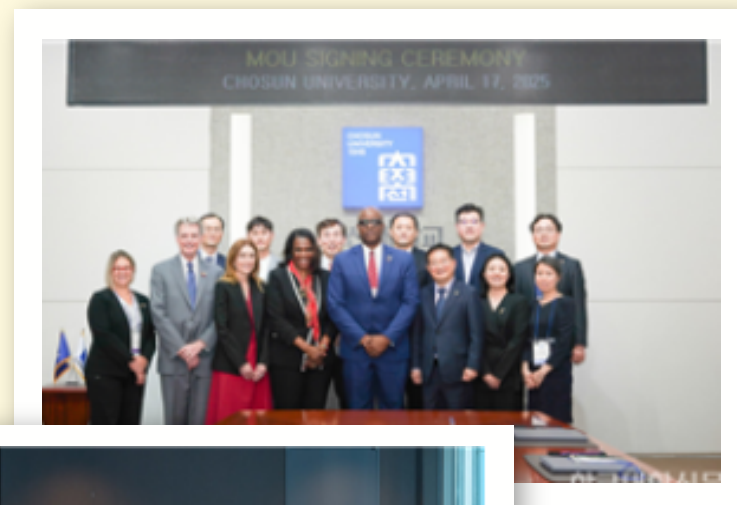
조선대-미국 메릴랜드대, 보건의로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는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 캠퍼스와 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분야에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보건의로 교육과 연구 협력을 본격화했다.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교 주요 인사와 함께 메릴랜드 주지사가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양 대학은 교수 및 연구원과 학생 교류, 공동 학위 및 연구 프로그램, 학술 정보 교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대 김춘성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가 건강수명 연장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으며, 메릴랜드 주지사는 양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경제 성장과 학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2025.04.23 (수)

조선대, “글로벌대학30 추진에 박차”



조선대학교는 22일 ‘글로벌대학30’ 추진을 위해 총동창회와 공청회를 열고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비전을 중심으로 혁신 전략을 공유했다. 공청회에서는 세계한인무역협회,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과학기술원 등과의 산학 협력과 국제 교류 사례, 웰에이징 특성화 인재 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계획 등이 소개됐다.

전제열 조선대 부총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웰에이징 특화 대학’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총동창회는 취업·창업 지원과 국제 협력, 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정효성 총동창회장은 동문 역량을 활용해 조선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위한 발자취

2025.04.28 (월)

조선대, 총학생회 대상 글로벌대학 설명회 개최



조선대학교는 25일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글로벌대학 30 추진 설명회’를 열어 혁신 방향과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했다. 학생 대표 52명이 참석해 학사구조 개편, 웰에이징 특화모델, 전공 교육과정, 재정·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질의응답했다. 대학본부는 학생 의견을 반영해 혁신 전략을 고도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락 기획처장은 “학생 참여가 웰에이징 선도모델의 핵심”이라며 프로그램 설계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혁신보고서를 보완하고 최종 실행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5.05.07 (수)

조선대, 글로벌대 본지정 도전장…광주 첫 사례 나올까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도전하며 광주에서 처음으로 글로벌대학 본지정 대학이 되기 위해 나섰다. AI·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융합을 통한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비전을 내세워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 혁신을 목표로 한다. 조선대는 13년간 축적한 노인성질환 빅데이터와 특성화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웰에이징기술융합원 설립, 산학 협력,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며 광주·전남 지역의 교육과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2025.05.19 (월)

조선대 가드코호트연구단, ‘글로벌 TOP 프로젝트’ 선정



조선대 가드코호트연구단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함께 정부의 10대 ‘글로벌 TOP 프로젝트’ 중 하나인 ‘차세대 뇌 글림프계·신경계 조절 전략연구단’에 선정됐다. 향후 5년간 2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치매 등 노인성 뇌질환 치료용 의료가기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는 뇌 글림프계 자극으로 뇌척수액 흐름과 노폐물 제거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세계 최초로 인간 대상 글림프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부터 임상 검증, 기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며 2030년 의료가기 실용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건호 단장은 “조선대의 의료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과 세계 시장 선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2 (목)

조선대, 학생 지지 속 글로벌대학 응원 캠페인 마무리



조선대학교는 2025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앞두고 학생, 교직원, 시민들이 참여한 응원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학생들은 SNS에 “조선대학교의 글로벌대학 선정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진을 올리며 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캠페인은 장미주간에 시작해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산되었다. 임채효 총학생회장은 “대학의 성공은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조선대가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돼 지역과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학생과 지역사회는 대학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